

“모가디슈·인질 어렵게 개봉...코끝이 찡해요”



강혜정 외유내강 대표.

강혜정 대표 “불 만한 영화라는 확신줄 것”

남편 류승완 감독과 ‘외유내강’ 17년째 운영

팬데믹에도 올여름 극장가가 참패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국 영화들 덕분이다.

7·8월 개봉작인 류승완 감독의 ‘모가디슈’와 황정민 주연의 ‘인질’은 제작사 외유내강의 작품으로 3주 간격으로 잇따라 개봉했다. ‘모가디슈’는 300만, ‘인질’은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개봉 전까지만 해도 제작사는 노심초사해야 했다.

남편 류승완 감독과 외유내강을 17년째 이끄는 강혜정 대표는 최근 화상 인터뷰에서 “이걸 흥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해요”라며 기쁘면서도 아쉬운 비명을 질렀다.

‘모가디슈’는 마블의 ‘블랙위도우’를 제치고 올해 개봉한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고, ‘인질’ 역시 올해 박스오피스 8위에 올랐지만, 하루에도 작품 한 편에 관객이 100만명씩 몰리며 천만 관객 영화가 탄생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전 시절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영화가 대작이든 소작이든 코로나가 진정되면 개봉하지는 것이 제작사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라며 “나 역시 두 작품이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영화가 되리라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렇게 오래 유지될 줄 알았으면 못 했을 것”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영화 ‘모가디슈’, ‘인질’ /외유내강 제공

그는 “영화가 제작된 뒤 기다린 시간도 있고, 배급사들도 작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여름 시즌 개봉을 원했다. 더 미루는 것이 효과적이지에 대한 고민 끝에 결정했다”며 “다행히 두 작품의 장르적 성격이 달라 충돌하는 것은 아니어서 연달아 개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모가디슈’ 350만명, ‘인질’ 170~180만명선으로 추계 연휴까지 장기 흥행이 이어진다면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비 200억대 규모의 ‘모가디슈’는 한국 상영권협회가 제작비 절반 회수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강 대표는 최근 극장가를 ‘상상할 수 없는 시장’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런 상황에도 극장을 찾아준 관객들에 대한 감격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한국 관객에게는 마음이 힘들 때 한국 영화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는 것 같아 자부심도 들었다고 전했다.

“두 영화를 보러온 관객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코끝이 찡해요. (감염 위험에 대한) 마음의 허들을 넘고 용기를 내 극장에 오시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흥행에 대한 물리적 아쉬움을 감정적으로 몇 배 이상 보상받은 것 같아요. 성적과 상관없이 관객들과 소통했다는 데 진정한 기쁨이 느껴져요.”

외유내강은 설립 초기에는 류 감독의 작품 위주로 제작을 진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인 감독 발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장르도 액션에서 코미디 ‘다짜마와리’, 공포 ‘사바하’, 재난 코미디 ‘엑시트’, 로맨스 ‘나의 결혼식’ 등 다양해졌다.

강 대표는 관객들에게 “불 만한 영화라는 확신”을 주고 싶다고 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삶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문화가 어떻게 소비될지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해요.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저는 똑같아요. 내 작품의 허들, 레벨을 높이는 것. ‘그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007 시리즈 ‘노 타임 투 다이’ 전 세계 최초 한국서 개봉

007 시리즈 신작 ‘노 타임 투 다이’가 이달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배급사 유니버설픽처스는 ‘007 노 타임 투 다이’를 오는 29일 오후 5시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한다고 밝혔다.

제작 관계자는 대한민국 극장과 국민의 모범적인 방역 사례에 대한 신뢰와 한국 관객들의 007 시리즈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노 타임 투 다이’에서는 가장 강력한 운명의 적이 등장하며 죽음과 맞닿은 작전을 수행하게 된 제임스 본드(대니얼 크레이그)의 마지막 미션을 그린다.

M16을 떠난 뒤 매들린(레이 세이두)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 CIA 요원 펠릭스(제프리 라이트)가 찾아와 선별적 DNA 공격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생화학 무기 유출 사실을 알린다.

위험에 처한 세계를 구하기 위해 복귀한 제임스 본드는 새로운 M16 요원 노미(라사나 린치)를 만나고, 모든 사건의 배후에 운명대로 얽혀 있는 최악의 적 사린(라미 말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낸다.

애초 지난해 4월 선보일 예정이었던 영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개봉을 세 번 연기했다. 한국 개봉 이후 9월 30일 영국, 10월 8일 북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12편 선정

10월 6일 개막하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섹션에 상영할 작품 12편이 선정됐다.

이 섹션은 한국 독립영화와 신인 감독 발굴의 실질 역할을 해왔다.

BIFF 사무국은 올해 이 섹션에 상영할 작품은 지난해보다 2편 늘어난 12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인미 감독 ‘만인의 연인’, 오성호 감독 ‘그 겨울, 나는’, 김미영 감독 ‘절해고도’, 정원희 감독 ‘뚝뚝’이 상영 작품에 선정됐다.

이우동 감독 ‘한 곳’을 비롯해 ‘소피의 세계’(이재한 감독), ‘모퉁이’(신선 감독),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박승열 감독), ‘올 겨울에 찍을 영화’(김경래 감독), ‘초록밤’(윤서진 감독), ‘빛이 날 탈 났’(서보형 감독), ‘컨베이션’(김덕중 감독)도 부산영화제를 찾는다.

이들 작품은 심사를 거쳐 한국영화감독조합 메가박스상, CGV아트하우스상, KBS특별영화상, 왓차상, 시민평론가상, 올해의 배우상 등 다양한 상을 받게 된다.

NQQ-디스커버리 ‘고생 끝에 밥이 온다’ 제작발표회

조세호 “학창시절로 돌아간 느낌”



고생 끝에 밥이 온다 출연진. /NQQ,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제공

한국인의 영원한 숙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1982년생 친구들이 뭉쳤다.

지난달 31일 밤 8시 첫 방송된 NQQ와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의 새 예능 프로그램 ‘고생 끝에 밥이 온다’에서다. 이 프로그램은 음식의 진정한 가치와 맛을 느끼려던 ‘몸이 고생해야 한다’는 착안에서 기획됐다. 개그맨 문세운, 조세호, 황제성, 강재준 1982년생 4인방은 궁극의 맛을 향해 고생길을 선택했다.

문세운은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1982년생 친구 중에서도 가장 생일이 빠르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친구들과 소풍 가는 것처럼 즐거웠다. 팀 개그를 해본 적이 없는데 ‘82그룹’에 소속감이 들어 굉장히 좋다”고 밝혔다.

조세호도 “고생하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조합이 달라 느낌이 다르다. 마지막에 다소 허무할 수도 있지만 허무한 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며 “평소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하니 오랜만에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촬영이 정말 힘들기는 했다. 100만원 짜리 정바지를 입고 한라산에 올랐다. 제주도도 간다고 해서 아끼던 티셔츠와 정바지를 입고 갔는데 왜 이걸 입고 출연했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궁극의 맛이 있으시면 대신 고생하고 전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황제성은 “세운 씨와 세호 씨가 양쪽에서 든든하게 리더 역할을 하니 편하다. 촬영 간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 참 좋다. 내가 제일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중 예상을 했지만 해보니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래도 친구가 나보다 더 힘든 걸 보면서 덜 힘들다는 걸 느꼈다. 그 재미를 노리고 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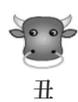
강재준은 “대세인 친구들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 체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공황장애와 폐소공포증이 올라와 힘든 촬영이긴 했다. 그래도 내 몸 하나로 웃음을 드릴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9월 2일 (음력 7월 26일)



48년생 한 술 밥에 배부르라? 60년생 친구 탓에 속상할 일이 있겠다. 72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84년생 구설수가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다. 96년생 진로 문제로 생각 많아짐.



49년생 목욕을 위해 잠시 잠아야 한다. 61년생 직장서 승승장구 한다. 73년생 아픈 만큼 성숙해 질 것이다. 85년생 경쟁보다 공존을 모색함이 이롭다. 97년생 기성세대에 대한 이해 부족.



50년생 욕심을 버리면 고통도 줄어든다. 62년생 지난날의 고생과 서운함은 잊는 것이 이롭다. 74년생 가능하면 다투지 마라. 86년생 한 번만 참고 인내하라. 98년생 뉘는 말과 행동 자제.



51년생 선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63년생 정공법으로 난관을 돌파하라. 75년생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87년생 분노를 참고 아량을 베풀어라. 99년생 사람 믿지 마라.



52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64년생 아는 것이 병이 될 때도 있다. 76년생 열정만 있으면 성취할 수 있다. 88년생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2000년생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



41년생 작은 소망이 실현된다. 53년생 행복은 만족할 때 느낄 수 있다. 65년생 겸손하게 처신하면 위태로움이 없겠다. 77년생 만사형통하는 좋은 날이다. 89년생 능력을 발휘해 보자.



42년생 만족과 타협 속에 평화가 있다. 54년생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좋겠다. 66년생 앞만 보고 전진하라. 78년생 측근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다. 90년생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기자.



43년생 성가신 일이 있겠다. 55년생 몸은 힘들고 지출도 많겠다. 67년생 주위 사람들이 내 편이다. 79년생 산 너머 산이니 한숨이 절로 나오누구나. 91년생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성실.



44년생 사람들 앞에서 위신을 세운다. 56년생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 있다. 68년생 좋은 소식이 들린다. 80년생 모임에 참석하면 부담스런 일이 있겠다. 92년생 즐거운 일로 고민할 수도.



45년생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57년생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다. 69년생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라. 81년생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들린다. 93년생 열정은 젊음의 특권.



46년생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58년생 지금은 수단방법 가릴 때가 아니다. 70년생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82년생 소식을 펼쳐라. 94년생 사랑은 줄 때 더 행복함.



47년생 금전문제로 다들 일이 있겠다. 59년생 힘들면 잠시 쉬어 가야한다. 71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라 온다. 83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는다. 95년생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